

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- 非文人 전집 출간 활기—「徐恒錫전집」「任哲宰전집」 등 학자, 사상가, 연극인 등이 일생의 글 모아내놔 (동아일보 11월 3일 宋煥彥기자)
- 현대미술 이론·비평서 출간 잇달아—미개척 분야 독자층 증기勢 겨냥/서양미술 흐름 체계적 이해도와(한국경제신문 11월 4일 李成九기자)
- 야당 발의 출판법률안 ‘독소조항 많다’ 반발(경향신문 11월 4일)
- ‘례저만화’ 불티난다—「명인환속」「19번홀」「낚시도사」 등 인기…알기쉬운 풀이 견진한 내용 담아잇달아 히트/청춘물 시들…테니스·등산 소재도 서둘러(스포츠서울 11월 4일 이규승기자)
- 19세기 조선북부지방 민간설화수록 「백두산民譚」 발간—려시아작

가 미하일롭스키 저서 1백년만에 국내 소개…당시 세태·풍속 생생히 담아/구비문학 연구에 귀한 자료/호랑이사냥 얘기 등 52편…신선한 감동(서울신문 11월 5일 任英淑기자)

- 새 언론법안 수정 강력 요구—야당 “신문시설기준 등 악용 소지 많다”(동아일보 11월 5일)
- ‘새 출판인쇄법 독소조항 많다’ 출판계, 국회통과 저지 캠페인—편집자 결격조항 신설 등改惡/‘남본필증 교부 등 개선’ 반론도(조선일보 11월 6일 曹良旭기자)
- 출판기자단 선정 제2회 ‘올해의 책’에 「염상섭전집」「한국회화사론」 등 5종/문공부 우수도서, 「조선西學史연구」「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」 등 119종 추천(조선일보 11월 6일)
- ‘출판규제 독소조항 내포’—55개 출판사 대표 관련법개정안 폐기 주장 성명(한국 경제신문 11월 6일)
- 출판계 새 등록법안 수정 촉구—편집인 결격사유 규정 등 논란/“기존법률 改惡…민주화 역행”/출판인 55명 반대성명…出文協·韓출협도(한국일보 11월 6일 社説)

● ‘출판자유 규제조항 많다’—55개사 대표 출판법 개정안 수정을 건의/경영자 결격사유·停業처분 등 강화’(서울신문 11월 6일)

- ‘경영·편집책임자 규제는 부당’ 출판 인쇄소등록법 개정안에 출판인 반발—‘刑 종료 3년내 불가’는 민주인사 봉쇄 속셈, ‘결격자 법시행 6개월내 교체’도 소급입법/정역형 신설 등 처벌조항도 현행법보다 강화된 셈(동아일보 11월 6일 宋煥彥기자)

● ‘출판법 개정안 독서조항 많다’ 출판계, 문공위 통과하자 일제히 반발—영업정지 등 처벌기준 모호/등록취소 범위의 확대적용(중앙일보 11월 6일 奇亨度기자)

- ‘경영·편집자 자격제한이 불씨’ 출판계의 새 법안 반발 배경—직업선택·자유영업에 역행…결국 출판사 통제하려는 저의 보인 것/7일 국회에 상정…통과여부 주목(경향신문 11월 6일 安健姵기자)
- 언론관계법안의 문제점—야당이 문공위에서 언론관계법 통과 때 전원 불참하는 등 무성의…국회는 보다 신중한 심의를 해야(동아일보 11월 6일 社説)

● 새 언론법안의 독소—‘정기간행물의 등록문제’ ‘추후보도 청구권’ 등/大權선거에만 정신을 팔 것이 아니라 민주화의 기초가 되는 언론관계법 제정에 심혈을 (중앙일보 11월 6일 社説)

- 우체국장의 ‘고향사랑’ 驪州 金正一씨, 계간 「사랑방」 창간—내고장 풍물·인정·미담 등 실어…우정국 창시자 洪英植도 소개/체신보험·예금요령 담아 민원창구 구실(서울신문 11월 6일 朴先和기자)

● 떠돌이 새가 찾는 포근한 고향,

감태준시집 「마음이 불어가는 쪽」

출간—현실의 비인간성 서정적 묘사(중앙일보 11월 6일 문학평론가 이남호)

- 출판법안 보완 검토—민정당 출판계 의견 수용(조선일보 11월 7일)
- 언론관계법안 싸고 여야대립—법사위소속 野 ‘전면보류’ 與 ‘일부보류’ 맞서(동아일보 11월 7일)

● 언론관계법의 말썽 조항—‘언론자유탄압의 악법’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게 유감없이 마지막 손질을 하도록(한국일보 11월 7일 社説)

- 圖錄경용 연구서 「夢遊桃源圖」 출간—安輝濬·李炳漢교수 공저…

부분 확대 전폭 원색 影印/ 당대 명사들의 跡記도(한국일보 11월 7일)

- 출판관계법안 폐기될듯—법사위 계류 결정, 나머지 언론법안은 10일 처리(조선일보 11월 8일)

● 출판법개정안 사실상 폐기—법사위 계류…회기내 처리 않기로/결격사유, 독소,違憲 등 말썽/언론관계 다른 4개 법안도 결론 못내(한국일보 11월 8일)

- 全作 敏事시집 잊달아 출간—「白頭山」「새야새야…」 등, 근대사·인물·신화 소재/짧은 서정시의 한계 넘어 문학영역 확산(중앙일보 11월 9일 奇亨度기자)

● ‘한국출판문화상’ 출판문화 성장과 더불어 28년—60년 「古語辭典」 등 5종 첫 수상…3회 이후 저작·제작상 분리 시상/「中國近代…」 등 세계적 연구업적 평가도(한국일보 11월 10일 金龍善기자)

- ‘사회학 현주소 점검, 방향 제시’ 무크 「한국사회연구」 5집—농업·노동 등 6분야 종합 조망…결실기 접어든 少壯학자 연구성과 담아/朴玄采씨 「민족경제론」 分載 첫 회 눈길(매일경제신문 11월 10일)

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인식하고 내일을 지향하는 「同和」의 韓國史選書

「同和」 韓國史選書는 100권 기획으로 계속 출간됩니다

●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
韓國의 國境研究

梁泰鎮 著

우리의 강토, 人世의 변천, 지명의 개정, 강산의 변천 등을 밝혀 鄂域 관계 考察

■ 신국판 / 245쪽 / 값 4,800원

韓國彌勒信仰의 研究

金三龍 著

한국미륵신앙의 변천 과정, 그 연원의 규명과 문헌의引證 등을 분석한 研究書

■ 신국판 / 283쪽 / 값 8,500원

韓國의 壁畫古墳

金基雄 著

한국의 벽화고분의 분포 상태, 구조 및 변천과정, 發生 및 編年 등을 종합적으로 考察

■ 신국판 / 280쪽 / 값 6,500원

韓國佛教史研究

安啓賢 著

한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그 전통의 基幹이 되는 한국불교의 문화와 사상을 연구 발굴한 力著 ■ 신국판 / 338쪽 / 값 5,800원

韓國의 陽明學

劉明鍾 著

양명학의 주체사상, 한국에 있어서 양명학의 발자취와 功過를 세밀히 분석 정리한 名著 ■ 신국판 / 343쪽 / 값 5,800원

朝鮮時代寺院經濟研究

金甲周 著

조선시대의 사원경제, 사원농장, 승려의 보사 활동, 승려의 사유전답, 사찰의 양안 등을 분석 비판 ■ 신국판 / 282쪽 / 값 5,800원

高麗佛畫의 研究

洪潤植 著

高麗觀經變相을 중심으로 한국, 일본의 각 寺院을 탐방, 불교신상 형태를 총정리 ■ 신국판 / 286쪽 / 값 8,500원

韓國의 道教思想

車柱環 著

道教導人 이전의 仙家說, 그리고 도교도입 그것과 아우른 한국적 도교 수용을 분석 정리 ■ 신국판 / 385쪽 / 값 7,800원

廣開土大王陵碑 新研究

李亨求·朴魯姬 共著

廣開土大王陵碑가 재발견된 이래 수많은 논쟁이 거듭되었지만 확고한 결론이 내려진바 없다. 본서에선陵碑의 건립·재발견·특징·고석, “僞字考”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참고 자료를 부록에 실었다. ■ 신국판 / 325쪽 / 값 9,500원

韓國近代의 民族意識研究

韓國近代史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研究書!
韓國 民族主義의 형성과 展開, 韓國近代史에
있어서 開化期 知識人들의 思想의 뿌리를 探索, 研究 정리한 力著.

金昌洙 著

□ 주요내용: 保守的 在野 知識인의 民族意識 / 穩健中道 知識인의 民族意識 / 開化 知識인의 民族意識 / 民衆의 知識인의 民族意識 / 부록: 黃眩의 東學關係 記錄 (未刊資料)

• 신국판 / 337쪽 / 값 8,000원



同和出版社
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30-4
전화 713-5411~5